

한국현대사의 암흑기였던 군사독재 시기에도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진실한 역사의 기록은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국가폭력이 손쉽게 자행되던 세상에서 민주주의라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불의에 맞서 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사업회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1000시간 이상, 320여 명의 생생한 구술을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술이야기'를 통해 반독재 민주화운동이 치열하게 일어났던 1970년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이야기부터 풀어 보고자 합니다. 준엄한 역사의 진실과 따뜻한 감동이 있는 '구술이야기'는 직접 구술을 채록한 면담자가 구술자의 구술내용을 바탕으로 당시의 기억을 불러내어 재구성한 글입니다.

1975년 봄, 꽃은 피고 또 지고...

_박대선 전 연세대 총장

글 · 이경은 kayklee@empal.com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나 그 속내를 털어놓게 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역사 속 인물들을 만나면 사정은 달라진다.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 진실을 감추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은 그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스스로의 역사 의식 때문인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대단히 적극적으로 물어 두었던 기억을 되살리느라 혼신의 힘을 쏟는다. 2008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에서 주관하는 구술사료 수집사업의 과제는 1970년대 학생운동이었다. 70년대 학생운동 가운데 연세대 시위 사건을 맡게 된 나는 다들 돌아가셨을 것으로 믿고 있던 당시 연세대 총장 박대선 목사님(이하 총장)을 찾았다. 그는 격동의 20세기를 온전히 살아낸 93세의 할아버지였다.

1975년 봄, 연세대.

1975년 3월~4월의 연세대 시위사건은 전교생 8천 명과 교수, 교직원 이 모두 참여한 전국적 시위였다. 연

세대 개교 이래 전무후무한 최대의 시위로 기록된 이 사건은 연세대가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연세대 교수 2명과 학생 15명의 복직, 복교를 추진하자, 문교부가 이를 저지하면서 촉발되었다. 유기준 문교부 장관은 1975년 2월 17일 석방자들의 복직, 복교 문제는 각 학교의 총장, 학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천명한 바 있었다.

석방된 연세대의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는 김찬국, 김동길 교수 2명과 학생 15명이었다. 3월 5일 교수평의회는 교무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복직, 복교를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1975년 3월 13일의 정기 교무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석방자 전원에 대한 복직, 복교를 결정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복직, 복교를 추진하는 연세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자 문교부는 방침을 바꾸어 복직, 복교 불허로 돌아섰다. 연세대 교무위원회가 복직, 복교를 결정한 당일, 문교부는 연세대에 계고장을 보내

이를 철회하도록 요구했다.

문교부의 집중적인 압박이 점차 심해지는 가운데 총학생회는 3월 14일 문교부의 방침을 규탄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첫 비상학생총회를 열었다. 이후 4차례에 걸친 비상학생총회는 격렬한 시위로 이어졌다. 처음 4천 명이 참여하던 것이 4월 3일 박대선 총장이 사퇴하던 날 열린 제4차 비상학생총회에는 전교 학생 8천 명과, 전 교직원, 교수 등이 모두 참여했다. 연세대는 4월 4일 무기한 휴교에 들어갔으며, 등교를 저지당한 학생 수천 명이 신촌 일대에서 지속적인 시위를 벌였다.

연세대 재단이사회가 4월 10일 박대선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이우주 총장서리를 선임하면서 시위는 일단락되었지만, 12일 복직된 두 교수와 복학생, 21명의 시위 참여자가 모두 해직, 제적을 당했고 총학생회장 유지준, 총무 조봉래, 동곳회(상투를 틀었을 때 망건을 고정시키는 도구인 동곳을 이름으로 한 연세대의 이념서클)의 김규복 등 3명이 구속되었다. 한편 연세대의 휴교는 47일 동안 이어졌다.

1975년 봄의 연세대 시위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의 복직, 복학을 둘러싸고 문교부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시작된 것이니 그 발단은 박대선 당시 총장으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박 총장은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교수를 복직시키고 학생 17명을 모두 복학시키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데모로 시작해 데모로 끝난 임기

박대선 총장을 그의 용인 자택에서 만난 것은 2008년 10월 24일이었다. 박 총장은 거동이 조금 불편하시고 청력이 좋지 않으신 것 말고는 정정하셔서 93세의 나이로는 보이지 않았다.

박 총장은 1964년에 연세대 총장으로 취임해 1975년

사임할 때까지 22학기를 재임했는데 한 학기를 제외한 21학기 내내 학생시위가 지속되었다고 기억했다. 양성우 시인은 박정희 군사독재 하의 한국사회를 '겨울공화국'이라 불렀고, 김지하 시인은 신새벽에 남몰래 담벼락에 '민주주의 만세'를 분필로 쓴다고 했을 만큼 엄혹한 시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독재 타도를 외치는 학생들의 저항은 끊이지 않았다.

박 총장은 자신의 재임 기간을 '데모로 시작해 데모로 끝났다'고 표현했다. 총장에 취임한 1964년 6·3 사태로 시작해 1975년 연세대학교 봄 시위까지 장장 21학기 동안의 학생시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명의 학생도 징계하지 않았다. 그가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지켜온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엔 이제 문교부는 뭐 명령에 충성을 해야 되지 않아요? 난 안 한다구. 내가, 잘못하면 하지만, 잘못된 거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또 학생들 처벌하라 하면 난 다 못해요. 밤낮 그러지요. 학생들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안 한다. 처벌 안 한다. 학생들이 부정을 했다거나 뭐 어.. 학생답지 않게 했으면 그것은 처단한다. 근데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어... 나쁜 일도

휴강공고가 나붙은 연세대학교 정문(1975년 4월)

사진제공 경향신문



없는데, 난 안 한다. 절대로 안 한다.’ 한 번도 안 했어요.”(박대선)

이 사건과 관련한 구술자의 한 사람인 김학민은 자신이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되었지만, 정작 자신의 학사징계가 이루어진 것은 박 총장 퇴임 이후인 1975년 4월이었음을 나중에 기록을 보고 알게 되어 매우 놀랐었다고 증언했다.

“.....그 동안에 탄 데 서울대 같은 데 제적시켰어요. 다. 아니 다 끝났다고. 우리도 나중에, 나중에 봤더니 학적부를 떼 봤더니, 그 4월에 제적을 했더라구. 그러니까 제적을 미뤄놨어. 안했어. 제적을 안 하구, 그냥 무슨 뭐 장기결석 같이 비슷하게 엉겨주춤하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과 별로 편차가 좀 있겠지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렇게 됐더라고요. 나중에. 징계를 안 받았어요. 첫 징계를 75년에 받았습시다.”(김학민)

김규복 역시 박대선 총장이 학생들을 징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말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은 듯 했다.

“그래요? 그.. 저는, 저는 74년, 그제 74년, 75년 사건인데 75년 전에 없었다?.....음. 음. 그렇다면 그 말이 맞는 거 같네요. 전 75년에 제적이 됐으니까.”(김규복)

김학민과 김규복의 증언으로도 알 수 있듯이 연세대에는 교수건, 학생이건 징계가 없었다. 그러니 복직, 복학도 구제 절차 없이 당사자들이 복직, 복학 신청만 하면 되는 상태였다. 문교부로서도 꽤나 놀랐을 테고, 그때부터 문교부는 학사 운영에 무리하게 개입해 왔다.

박대선 총장은 김찬국, 김동길 두 교수가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도 그들의 급료를 집행했다. 그것이 빌미가 되어 연세대는 대대적인 감사를

받아야 했다. 세 번에 걸친 대대적인 감사는 전무후무한 것으로 박대선 총장을 구속할 수 있는 꼬투리를 찾기 위한 것이었지만 스스로에게 매우 엄격했던 그가 부정을 저질렀을 리 만무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재임시절 내내 학생시위로 연행된 학생들을 서대문경찰서로 찾아가 사식을 넣어주고, 영치금도 넣어 주는 등 교육자로서, 성직자로서의 사명을 다했다. 형무소와 경찰서를 참으로 많이도 찾아갔었다고 기억하는 박 총장은 그것이 학생들과 교수들을 위해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아, 내 돈 갖다 준, 저기 저, 학교 돈 갖고 한 거 아니야. 내 개인 돈으로 가지고, 감옥에서 고생하니까 아!”(박대선)

박대선 총장은 당시를 떠올리며 그가 했던 일보다는 구속된 교수, 학생들이 고생하던 모습이 떠오르는 듯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었다.

박 총장은 몇 년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다. 그때 연세대 동문들이 만찬을 열어 감사패를 주었다. 그는 ‘총장님이 아니었으면 졸업을 할 수 없었다.’는 동문들의 감사의 말을 듣고 매우 흐뭇했다고 한다. 비록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다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감사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노력이 보람 있는 일이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박 총장은 당시 총장으로서 절대적 권한을 행사했다. 당시 재단이사회 등 학교 측의 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절대로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저 총장에게 전적으로 믿고 맘대로 하는 거지. 이사장도 한 마디도 안 하고, 또 이사회에서도 아무도.. 그때 그 전권을 가지고 있었어. 아주 전적으로. 재단이 내가 하는 일에 하나도

반대 안 했어. 아주 잘해 줬어. 반대하는 일 없고. 재단 이사회하고는 합심이 돼서. 내 하는 건 전적으로 찬성을 했어. 다 친했다구. 아주 친하게 지내고. 또 재단이사장도 내가 하는 걸 하나도 반대 안 했어.”(박대선)

그는 심지어 사퇴 문제도 재단과 의논하지 않고 혼자 결정했다고 한다. 그가 학교 운영과 관련해 절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부정하지 않고 도덕성을 훼손하지 않았고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었다. 그랬기에 재단이사회는 그에게 3선 총장의 영예를 주었던 것이다. 연세대 총장으로서 가장 오랜 기간 복무한 박 총장은 단 한 건의 부정입학도, 단 한 푼의 부정한 돈도 받은 적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64년부터 75년까지 군부독재 시절 내내 늘 정부와 마찰을 빚으면서도 깨끗하게 이겨냈다.

굽힘이 없는 소신, 올곧은 삶

박 총장은 문교부가 제시한 시한인 4월 2일이 지날 때까지 사표를 내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지켰다고 한다. 문교부의 최후통첩 시한을 넘긴 다음 날인 4월 3일 아침 박 총장은 출근하면서 재단이사회 앞으로 사임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연세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총장 사임 소식을 들은 학생들은 제4차 비상학생총회를 열었다. 연세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전교생 8천 명이 참여한 4월 3일의 시위는 비상학생총회를 마친 뒤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이었다.

4월 4일 휴교령이 내려져 학교 출입이 불허되자, 학생 200여 명이 담을 넘어 교내에 진입했고 전날 밤샘 농성을 했던 200여 명과 합류, 이계준 교목실장과 함께 커다란 태극기를 앞세우고 총장 공관으로 몰려갔다. 총장 공관에는 제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와 있었



2008년 10월 박대선 총장 용인 자택에서

다. 총장사임을 만류하는 학생시위대를 공관의 창가에 서서 내다보며 그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박 총장은 사퇴 후 공관을 떠나야 했지만 청렴하고 검소한 탓에 셋집을 얻을 돈도 없었다. 연세대 설립자의 후손인 언더우드에게 집 얻을 돈을 빌려주었다. 그는 연세대 바로 뒤에 살림집을 얻었다. 살림살이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그를 돕기 위해 제자들이 나섰지만 정부 당국은 이들을 세무조사 등으로 위협했다. 총장 사퇴 이후에도 정부 당국의 감시와 탄압은 이어졌다. 4년 간 출국금지를 당했고, 자택 앞에 세워진 초소에는 감시자가 출입자와 방문차량의 번호를 일일이 사찰해 담당할 세월을 보내야 했다.

박대선 총장의 굽힘이 없는 소신과 올곧은 삶에 대해 정작 당시의 연세대 학생운동가들은 잘 알지 못했다. 역사는 깃발을 들고 전면에 나선 투사들의 삶은 기록하지만, 뒤에서 묵묵히 이들을 지원하고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박대선 총장이 없었다면 1975년 봄 연세대의 전교적인 시위는 없었을 것이다. 참혹한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면 파릇한 짝이 돋고 다시 꽃을 피운다. 봄은 오고 또 가고... 그러나 다시 온다.

글 · 이경은 | 전 민가협 초대 상근 간사